

‘교통 연구의 명맥을 잇다’

-교통시스템 연구실의 발족-

신부용

1. KIST 교통경제 연구실

우리나라에서 교통공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써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과학기술연구소(KIST)에 교통경제연구실이 생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실은 황규복 선생이 이끌어 나갔었는데 1978년에는 1000페이지가 넘는 ‘수도권 장기 종합 교통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 중에는 이 보고서를 혹평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고 하나 필자가 후에 당사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그 보고서를 평할 만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그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치 교통정책의 교과서처럼 참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지역개발연구소

1978년에는 교통공학분야와 함께 주택, 도시계획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연구소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가 창설되었고 상기한 교통경제연구실은 점차 이 연구소에 흡수되었다. 당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던 필자가 KIST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0년 10월 지역개발연구소의 황용주 소장의 초청으로 두달간 방문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때 나는 서둘러

영구히 귀국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13년간 살아온 살림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첫아이를 가져 만삭이었던 아내에게 재산 정리 등 어려운 일을 남긴 채 필자만 이듬해 2월 귀국하여 지역개발 연구소의 도시교통연구 실장직을 맡았다. 이렇게 서둘러 귀국한 것은 당시 세계은행으로부터 3백만불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5대도시 교통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었는데 필자에게 PM을 의뢰하면서 하루가 급하다고 귀국을 재촉하였기 때문이었다.

필자 또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아내에게 어려운 짐을 맡겨가며 귀국하였던 것이다.

3. 지역개발연구소의 와해

그러나 귀국하자마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 가장 난처한 것은 새로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연구소 통폐합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과학원(KAIS)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원(KAIST)을 만들었으며 내가 근무하던 지역개발연구소는 국토개발원에 흡수 통합되고 말았다. 나는 13년만에 귀국하여 그렇지 않아도 얼떨떨하던 때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초청해서 온 몸이니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토개발원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도장을 찍었다. 당시 지역개발연구소에 6개 연구실이 있었는데 실장 중에 국토개발원으로 가겠다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흡수한 국토개발원이 우리의 조직을 모두 와해시키고 우리 직원들을 자기네의 체제에 분산, 배속시키겠다는 계획임을 알고 나는 당시 흡수 통합 추진책임자 H박사와 만나 담판을 벌렸다. “나는 KIST에 취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통공학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국토개발원에 교통공학연구실을 만들어 교통연구의 장소를 제공하고 나에게 책임을 맡겨 주지 않는다면 국토개발원에 올 수 없다”고 하였다. 내 요구는 묵살되고 말았다. 나는 이들이 우리나라 교통공학 발전의 길을 최소한 3년 후퇴시켰다고 하며 땅을 치고 통탄하였다.

국토개발원의 횡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개발연구소가 세계 은행 차관 자금으로 수행했던 ‘대량화물수송체제개선 및 교통투자 최적화 방안 연구’는 세계 은행이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하여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과업이 끝날 때까지 이 연구에 관련된 사람은 KIST에 남아서 다 끝난 후에야 국토개발원에서 받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장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린 판국에 누가 남아서 이일을 끝낸단 말인가? 결국 지역개발연구소의 마지막 소장이었던 황용주 박사는 아직 거취가 결정되지 않고 있던 나에게 이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의 부탁을 수락하여 약 3개월간을 침식시간외에는 이 일에만 매달려서 이 과업을 끝냈고 황 소장님은 국토개발원으로 가셨다.

4. 전산개발센터 교통시스템연구실 발족

세계 은행은 5대도시 교통개선연구 용역을 해 주기로 했던 지역개발연구소가 국토개발원에 통합되자 국토 개발원에 그 일을 맡기려고 검토하여 보았으나 국토개발원에는 교통연구 체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마땅히 PM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난감하게 되었다.

이때 KIST 부설 전산개발센터 소장이셨던 성기수 박사가 센터 안에 교통시스템연구실을 만들고 필자를 실장으로 삼을테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라고 제의하게 되었다. 그 과업을 추진하던 세계 은행의 Leon Miller 씨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비서까지 합해 4명이 팀이 되어 연구를 시작했으며 마치 패잔병을 끌어 모아 전열을 가다듬듯 팀을 불러 나갔다.

그러나 그 일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별다른 과제도 없고 정식 발령을 받은 직원은 나 하나뿐 이어서 월급을 줄 돈도 없었다. 그래서 성기수 소장께 찾아가 약간의 가계정을 열어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요구했던 액수는 지금 생각이 안나지만 3,4개월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였다. 소장님은 그러지 말고 좀 넉넉히 잡자고 하시며 내가 요구했던 액수의 10배를 제안해 주셨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 연구실에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그 돈은 다 꺼내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뒤 연구실의 살림이 어려워지는가 싶어 걱정이 될 때에도 소장님이 도와주시겠거니 하고 마음이 든든하여 용기를 잃지 않았다.

우리 연구실에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인원이 금방 20명, 30명을 넘게 되었으며 3년이 지나자 5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인원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할 수 있었던 국내 여건도 작용하였지만 성 소장님의 특이한 경영 스타일 덕분이었다. 사람 하나 뽑을 때마다 정원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하였다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 소장님은 거의 모든 운영권을 실장인 나에게 주어 실장의 재량으로 인원을 보충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경영방법을 배워 50명이나 되는 연구원들이 모두 프로젝트팀 리더를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다음 이야기에서 쓰겠지만 우리 연구실을 교통개발연구원이라는 독립된 국책연구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성 소장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권한의 위임과 자유경쟁을 기초로 한 운영스타일 덕분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